

수백억 대작 ... 쓰디쓴 성적

영화 '더 문'·'비공식작전' 50만·100만 관객 손익분기점 600여만명에 한참 못 미쳐
식상한 스토리·개봉 타이밍이 흥행 실패 요인

올여름 개봉한 한국 영화 대작 4편 가운데 가장 많은 제작비가 투입된 '더 문'과 '비공식작전'이 손익분기점에 훨씬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아 들고 극장가 퇴장을 앞두고 있다.

영화계에서는 두 작품의 흥행 실패 요인으로 개봉 타이밍과 새롭지 않은 스토리를 공통으로 꼽는다.

20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더 문'의 누적 관객 수는 50만명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평일 하루 관객 수는 1000명대까지 떨어졌다.

달과 우주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제작비로 약 280억원이 들어갔다. 단순 극장 매출로만 환산하면 손익분기점은 640만명가량인데 누적 관객 수가 10분의 1에도 못 미친 것이다.

'신과 함께' 시리즈로 이른바 '쌍천만' 흥행 신화를 쓴 김충현 감독이 5년 만에 선보인 신작이라는 점에서 이번 흥행 참패는 더 뼈아프다.

'비공식작전'의 경우 '더 문'보다는 다소 나은 상황이지만 마찬가지로 쓴맛을 보는 중이다. 누적 관객 수가 100만명을 겨우 넘어 당초 목표인 600만 관객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 영화는 모로코와 이탈리아 현지 촬영비가 70%에 달해 200억원이 넘는 제작비가 투입됐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비공식작전' 역시 흥행에 일각이 있는 김성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하정우와 주지훈이 주연해 개봉 전부터 기대가 컸다.

영화계 관계자들은 '더 문'과 '비공식작전'의 개봉 시점이 흥행 실패 원인 중 하나라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두 영화는 이달 2일 동시에 개봉했다. '밀수' (7월 26일)와 '콘크리트 유토피아' (8월 9일) 사이에 낀 '샌드위치 개봉'이란 말이 나왔다.

정지욱 영화평론가는 "두 작품이 한날 나오면서 결국 '관객 나눠 먹기'가 된 게 두 편 다 실패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라면서 "각각 다른 날 개봉했다면 최소한 관객이 분산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멀티플렉스 관계자는 "대작 4편의 첫 타자인 '밀수'가 호평을 받으면서 먼저 치고 나가 관객을 끌었다"며 "바로 다음 주 개봉한 '더 문'과 '비공식작전'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밀수' 2주 뒤에 개봉한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반사 이익을 얻어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작품 자체에서도 참패의 요인을 찾을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두 작품의 장르와 매력 요소는 다르지만, 스토리가 쉽게 예측되고 새롭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게 공통점으로 꼽힌다.

'더 문'은 사고로 혼자 달에 고립된 우주 대원 선우(도경수 분)와 필사적으로 그를 구하려는 전 우주센터장 재국(설경구)의 분투를 그렸다.

고립, 구출 시도, 탈출로 이어지는 서사가 단순한 데다 할리우드 영화 '마션', '그래비티' 등에서 접했던 이야기라 기시감이 든다는 평이 많았다.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더 문'의 시각특수효과(VFX)는 뛰어나지만, 할리우드 SF 작품보다 크게 메리트는 없다. 그렇다면 스토리라도 재밌어야 하는데, 이 영화에는 거의 부재하다시피 한다"고 평가했다.

'비공식작전'의 경우 1980년대 발생한 실화를 토대로 한 작품으로, 중동 지역에서 무장단체에 납치된 한국 외교관의 구출 작전을 그렸다.

이 영화는 개봉 전부터 올해 초 극장에 걸린 임순례 감독의 '교섭'과 비슷해 보인다는 평이 나왔다. '교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납치된 우리 국민들을 구하려는 외교관과 국정원 요원의 이야기를 다룬다.

납치와 구출이 주요 스토리라는 점, 두 남자 주인공이 짝을 이룬 바디물이라는 점, 주 무대가 해외라는 점,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 등 '비공식작전'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결국 신선하게 다가간 작품은 관객을 극장으로 끌어 살아남았고, 그렇지 못한 작품은 외면당했다는 얘기다.

윤성은 평론가는 "'밀수'는 처음 보는 해녀들의 액션이 있었고, 한국 영화 특유의 단점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면서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기존 한국 작품에서 보기 어려웠던 포스트 아포칼립스(재난 이후) 영화이고 우리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아파트를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 새롭게 느껴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화 '비공식작전'

피프티 피프티 "복귀 생각 없다"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 갈등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는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측이 복귀할 뜻이 전혀 없다며 깊은 감정의 골을 드러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의 한 가족은 19일 전파를 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인터뷰에서 "돈이고 뭐고 다 둘째치고 정확한 표현대로 하면 '가수'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말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날 피프티 피프티 사태를 조명하고 소속사 어트랙트, 외주 용역사 더기버스, 멤버들 측을 인터뷰했다.

멤버의 가족은 "(멤버들이) 공황장애로 여러 번 발작도 겪었고, 한 번은 병원에서 실신해 산소호흡기로 깨어난 적도 있었다"며 "소속사에 CCTV도 있었고 숙소에 감시와 통제가 너무 심하고 압박이 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전속계약서상 멤버들과 소속사

의 수익 분배 비율이 3대 7이라는 점도 공개됐다.

소속사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프로젝트에 직접비 30억원·간접비 33억원·신규 투자액 16억원 등 약 80억원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멤버들이 가수 활동으로 직접비 30억원을 갚으면 정산받을 수 있는 구조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측은 정산이 불투명하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외주 용역사 더기버스 측이 스웨덴 작곡가로부터 사들인 '큐피드' 데모곡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발매한 정황도 드러났다. 더기버스 대표이자 '큐피드'를 만든 안성일 PD는 "이가 너무 아프다"는 이유로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거절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라는 취지로 조정에 회부해 지난 9일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단 종결됐다. /연합뉴스

"박스오피스 조작 논란 대책 마련하라"

문체부, 영진위에 주문...집계 기준 변경·과태료 대상 확대 검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영화상영권과 배급사들이 박스오피스 조작 혐의를 검찰에 송치된 수사 결과와 관련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에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0일 문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18일 박기용 영진위원장을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로 불러 "박스오피스 조작 논란으로 영화상영권입장권 통합전산망과 영화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실추됐다"며 "박스오피스 집계기준 보완 등 대책을 마련하고 영진위가 리더십을 발휘해 지정 노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영진위는 박스오피스 집계 기준이 되는 입장권 통합전산망을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는 관객 수를 부풀리는 과열 경쟁을 막고 영화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영진위를

구심점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지정 노력을 전개하고, 박스오피스 집계기준을 '관객 수' 중심에서 '매출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통합전산망에 자료를 고의로 누락·조작해 전송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에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상영권'에서 '영화배급업자'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과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발권 정보를 허위로 입력해 관객수를 조작한 혐의로 멀티플렉스 3개사와 배급사 24개 업체 관계자 6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최근 5년간 국내 개봉 영화 323편의 관객수 267만 명이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직항로 개설 카페리어객선 6월 26일 취항

해남군 우수영 ↔ 신안군 장산 축강 30분대 신의 동리 50분대

사통팔달 해상교통의 관문 → 해남군 우수영항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대교 → 남해고속도로 서영암 IC → 30분 소요



(유)신진해운 061)244-0522